

천연기념물 황새의 중복원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

- 일본 도요오카시의 황새복원 사례 -

A Study on the speices restoration of Oriental White Stork *Cinconia boyciana* in Natural monum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oyooka, Japan

백인환^{1*} · 김세빈¹ · 백운기²

¹충남대학교 환경임산자원학부 · ²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I. 연구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에 따른 환경피해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대기 및 수질 오염, 생물다양성의 급감은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개발 전략의 수정은 불가피하며, 지역적 환경특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촌은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에서 소외되면서 인구 과소화, 노령화, 사회인프라의 열악한 구조 속에서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쌀개방과 농산물 전면 수입에 따른 경제적 기반도 붕괴되는 등 지역침체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환경파괴에 대한 친자연적 환경과 “웰빙”으로 대표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농촌환경이 새로운 대안 공간으로서 그 활용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실에서 그동안 발전이 지체된 농촌 지자체의 경우, 차별화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기존의 도시화, 산업화의 모델에서 지역정체성과 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서산의 철새기행전, 무주의 반디불이 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이 지역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친자연적 생태공간의 보전과 활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고유성, 특수성, 분포성과 함께 전세계적 희귀성, 진귀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의 중복원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철새의 중요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천연기념물을 지역의 대표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새의 전반적인 서식실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일본 도요오카시의 황새복원사업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향후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지역활성화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황새의 서식실태는 기존 황새출현에 대한 보고 및 기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본 도요오카시의 황새복원 사업은 전반적인 홍보물, 연구자료집을 중심으로 문헌조사와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황새의 서식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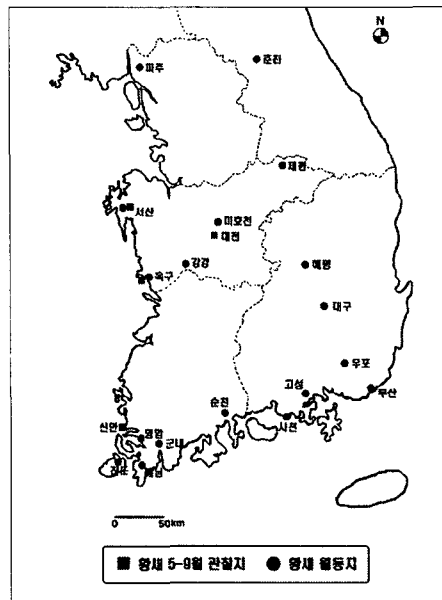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황새 월동지 분포

2. 일본의 황새 복원사업의 흐름

일본은 마지막으로 황새가 번식하였던 효고현 도요오카시를 중심으로 황새 고향 공원을 설립하여 복원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총면적 165ha에 이르며 부대시설로는 관리·연구동, 검역동, 사육관리동, 번식우리, 순화우리, 개체우리, 입원우리, 개방우리, 공개우리 등의 황새훈련장과 자연관찰로, 관찰사이트, 황새문화관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 있다.

